

『難經』의 五行生克理論 活用に 대한 考察

丁彰炫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關於『難經』中五行生克理論活用的考察

丁彰炫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本論文討論難經中的五行相生相克理論怎樣被活用。這里從幾個方面來探討， 例如五俞穴的五行配屬、寸關尺的五臟配屬、疾病的發生、疾病的傳變、死亡時期的預測、刺鍼補瀉、預防等。

關鍵詞(Keywords)：五行, 相生, 相克

五行理論은 한의학 이론체계의 핵심으로 특히 藏象理論은 五行思想을 근거로 성립된 것이다. 五行相生相克(이하 五行生克으로 약칭함)理論은 五行間의 相互關係를 규명하고 파악하는 이론으로, 五行理論의 실제적인 운용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五行生克이론은 『內經』이나 『難經』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難經』에서는

지어는 너무나 도식적이거나 또는 識緯的인 경향도 엿보인다. 예를 들면, 19難의 “男子生於寅”, “女子生於申”, 33難 “肝得水而沈, 木得水而浮, 肺得水而浮, 金得水而沈”, 40難의 “金生於巳”, “水生於申”, 41難의 “肝者東方木也, … 去太陰尚近, 離太陽不遠, 猶有兩心, 故有兩葉, 亦應木葉也” 등을 보면, 애초에 대답할 수 없거나 五行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조차도 五行에 꿰 맞추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難經』의 이와 같은 경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五行生克理論이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五俞穴	井	榮	俞	經	合	
陽經	庚金	壬水	甲木	丙火	戊土	相克 ↓
陰經	乙木	丁火	己土	辛金	癸水	
相生 →						

【표 17】 五俞穴의 五行配屬

보다 적극적으로 五行論을 활용하고 있고, 심

1. 五俞穴의 五行配屬

64難에서 “陰經의 井穴은 木이고 陽經의 井

穴은 金이며, 陰經의 榮穴은 火이고 陽經의 榮穴은 水이며, 陰經의 俞穴은 土이고 陽經의 俞穴은 木이며, 陰經의 經穴은 金이고 陽經의 經穴은 火이며, 陰經의 合穴은 水이고 陽經의 合穴은 土이다”¹⁾라고 하여, 井榮輸經合穴을 陰經은 木火土金水의 순서로 배속하고 陽經은 金水木火土의 순서로 배속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難經』에서는 이를 剛柔陰陽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剛柔의 일이다. 陰經의 井穴은 乙木이고 陽經의 井穴은 庚金이다. 陽經의 井穴은 庚인데 庚은 乙의 剛이며, 陰經의 井穴은 乙인데 乙은 庚의 柔이다. 乙은 木에 해당하므로 陰經의 井穴을 木이라 한 것이고, 庚은 金에 해당하므로 陽經의 井穴을 金이라 한 것이다.”²⁾

이는 五行의 兄弟配屬과 夫婦配屬을 응용한 것으로, 본래 天干의 오행 배속은 甲乙은 木에 합하고 丙丁은 火에 합하고 戊己는 土에 합하고 庚辛은 金에 합하고 壬癸는 水에 합한다. 이것이 오행의 兄弟配屬이다. 부부배속은 甲己는 土에 합하고 乙庚은 金에 합하고 丙辛은 水에 합하고 丁壬은 木에 합하고 戊癸는 火에 합한다.

63難을 보면, “五臟六腑의 五俞穴이 井으로 시작하는 것은 왜인가? 대답하기를, 井은 東方의 木에 속하니, 시기적으로 만물이 始生하는 때로서 모든 벌레들이 움직이고 숨쉬며 날고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때이다. 만물이 생활 때에 봄의 기운에 의지해서 生하지 아니함이 없다. 따라서 歲數는 봄에서 시작하고, 日數는 甲에서 시작한다. 때문에 井을 시작으로 삼은 것이다.”³⁾라고 하여 井穴을 東方春木에 배속하

고, 天干으로 甲에 배속하였다. 이는 井穴을 甲乙木, 榮穴을 丙丁火, 俞穴을 戊己土, 經穴을 庚辛金, 合穴을 壬癸水에 배속한 것이다. 그런데 인체는 항상 五臟이 중심이 되므로 먼저 이를 五臟에 적용하였으며, 五臟은 또 陰에 속하므로 天干 중에서 陰干을 취하여, 井穴을 乙木, 榮穴을 丁火, 俞穴을 己土, 經穴을 辛金, 合穴을 癸水에 배속한 것이다. 그런데 乙木은 庚金과 부부로서 합하므로 陽經의 井穴을 庚金에 배속하고, 丁火는 壬水와 부부로서 상합하므로 陽經의 榮穴을 壬水에 배속하고, 己土는 甲木과 부부로서 상합하므로 陽經의 俞穴을 甲木에 배속하고, 辛金은 丙火와 부부로서 상합하므로 陽經의 經穴을 丙火에 배속하고, 癸水는 戊土와 부부로서 상합하므로 陽經의 合穴을 戊土에 배속한 것이다. 이는 『難經』이 五臟과 六腑, 陰經과 陽經의 관계를 부부관계로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五臟과 六腑의 氣의 運動特性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李容範은 그의 논문 “『黃帝內經』의 本輸理論에 대한 연구”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 完整된 周期를 陽의 측면에서 관찰하였을 때는 陰이 처음으로 발현되는 시점으로부터 그 시기의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며, 陰의 측면에서 관찰하였을 때는 陽이 처음 발현되는 시점으로부터 그 시기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계절을 예로 들면, 陽의 측면에서 관찰할 때는 陰이 처음으로 발현되는 시기 즉 가을의 서리 내리고 낙엽 떨어지는 시기로부터 그 주기의 출발점을 삼아야 하고, 陰의 측면에서 관찰하였을 때는 陽이 처음 발현되는 시기 즉 봄에 만물의 陽氣가 始動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주기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本輸는 井에서

1) “陰井木, 陽井金, 陰榮火, 陽榮水, 陰俞土, 陽俞木, 陰經金, 陽經火, 陰合水, 陽合土”

2) “是剛柔之事也, 陰井乙木, 陽井庚金. 陽井庚, 庚者乙之剛也, 陰井乙, 乙者庚之柔也. 乙爲木, 故言陰井木也”

3) “五臟六腑榮合, 皆以井爲始者, 何也. 然, 井者東

方木也, 萬物之始生, 諸歧行喘息, 蜎飛蠕動, 當生之物, 莫不以春生. 故歲數始於春, 日數始於甲, 故以井爲始也.”

4) 大韓原典醫史學會誌 6권, 1991, 144~169쪽

습까지 經脈에서의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이며, 또한 이 수확된 열매가 四肢의 몸밖으로 드러난 陽部와 몸안쪽으로 감추어진 陰部에서 각각 陽의 작용과 陰의 작용을 발현시키는 場이다. 따라서 本輸에서 陽部の 陽의 작용은 五行의 가을에 해당하는 金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므로 井이 金의 속성을 띠게 될 것이며, 陰部の 陰의 작용은 五行의 봄에 해당하는 木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므로 井이 木의 속성을 띠게 될 것이다.”⁵⁾

이는 陰陽의 運動特性을 깊이 연구한 끝에 나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덧붙여 五臟과 六腑의 기능상의 특징으로 설명해하고자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五臟은 精을 藏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므로 水로 끝나고, 六腑는 水穀을 受納하고 運化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므로 土로 끝난다. 五臟은 일단 펼쳤다가 갈무리하고, 六腑는 일단 수렴했다가 펼치는 양상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나라는 점이다. 五臟은 최종 목표가 精을 갈무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단 펼치는 것이다. 六腑는 최종 목표가 水穀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여 전신에 공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단 수렴하는 것이다.

셋째는 五行의 相生相克理論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위의 【표 1】을 보면 五行의 相生과 相克理論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井榮輸經合 五俞穴은 陰經에서는 木火土金水, 陽經에서는 金水木火土의 순서로 모두 五行相生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五俞穴의 五行屬性을 비교해보면, 陽經이 陰經을 克하는 방식으로 배속되어 있다. 예컨대, 陽經의 井穴은 金이고 陰經의 井穴은 木으로 들은 金克木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은 방식이다. 이는 陰陽이 相互資生하면서도 相互牽制함으로써 인체 생명활

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陰陽이 상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2. 寸關尺의 臟腑配屬

18難에서는 寸關尺 三部에 臟腑를 배속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手太陰(肺)과 手陽明(大腸)은 金이고, 足少陰(腎)과 足太陽(膀胱)은 水이다. 金은 水를 生하는데 물은 아래로만 흐르고 위로는 오르지 못하므로 下部에 위치한다. 足厥陰(肝)과 足少陽(膽)은 木으로 手太陽(小腸)과 手少陰(心)의 火를 生한다. 불꽃은 위로만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므로 上部에 위치한다. 手厥陰(心包)과 手少陽(三焦)의 火는 足太陰(脾)과 足陽明(胃)의 土를 生한다. 土는 중앙에 거처하므로 中部에 위치한다. 이것은 모두 五行에서 자식과 어미가 서로 기르는 이치이다(手太陰陽明, 金也, 足少陰太陽, 水也, 金生水, 水流下行而不能上, 故在下部也. 足厥陰少陽, 木也, 生手太陽少陰火, 火炎上行而不能下, 故爲上部. 手心主少陽火, 生足太陰陽明土, 土居中宮, 故在中部也. 此皆五行子母更相生養者也)”

이를 도표로 그려보면, 【표 2】와 같다.

	左手	相生	右手
寸	心(火)	↑	肺(金)
關	肝(木)	↘	脾(土)
尺	腎(水)	↗	命門(火)

【표 2】 相生循環

左手를 보면 밑에서부터 水生木, 木生火의 과정이고, 右手는 火生土, 土生金의 과정이다. 또 左寸部에서 右尺部로는 心火에서 命門火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右寸部에서 左尺部로는 金生水의 과정이다. 『難經』에서도 밝혔듯이(此皆五

5) 위의 책, 162쪽

行子母更相生養者也) 기본적으로 五行子母相生이 배속의 기본 원리이다.

그러나 그 裏面에는 相克의 원리가 함께 內

	左手	相克	右手
寸	心(火)	→	肺(金)
關	肝(木)	↘ ↗	脾(土)
尺	腎(水)	↘ ↗	命門(火)

【표 3】 相克循環

배되어 있다. 【표 3】을 보면, 左右 寸關尺은 각각 火克金, 木克土, 水克火로 左克右의 상극 관계로 배속되어 있다. 이밖에 右寸의 金은 左關의 木을 克하고, 右關의 土는 左尺의 水를 克하여 右克左의 相克關係가 존재한다.

결국 寸關尺의 五行配屬에는 두 개의 순환 즉 五行相生循環과 五行相克循環이 내포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左尺으로부터 시작해서 水-木-火-火-土-金-水의 五行相生順序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체의 氣血이 十二經脈을 통해 上下左右로 끊임없이 순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표 3】을 보면 左寸으로부터 火-金-木-土-水-火의 五行相克順序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左右의 陰陽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寸關尺의 五行配屬은 相生과 相克을 동시에 應用하므로서 相互資生과 아울러 적절한 牽制를 통해 上下左右의 陰陽氣血을 조절하는 인체의 생리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좌우에 배속된 五臟의 속성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左手의 腎, 肝, 心은 모두 血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右手의 肺, 脾, 命門은 氣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로 본다면 左手는 陰에 속하고, 右手는 陽에 속한다. 그렇지만 五行屬性을 따져보면, 반대로 左手는 水木火로 陽의 과정에 속

하고 右手는 火土金으로 陰의 과정에 속한다. 결국 左手에 배속된 臟腑는 本體는 陰의이지만 작용은 陽의이며, 右手에 배속된 臟腑는 本體는 陽의이지만 작용은 陰의인 것이다. 이는 인체가 左右의 陰陽이 互根하고 體用의 陰陽이 互根함으로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한 고대인의 관점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陰陽이 상호자생하면서 동시에 상호 克制하는 陰陽太極의 원리가 그대로 체현되어 있다.

또한 18년의 臟腑配屬은 인체 생리와도 철저히 부합한다. 五臟을 陰陽으로 구분하면 心肺는 陽이고 肝腎은 陰이다. 이를 다시 陰陽으로 나누면 心은 陽中之陽이고, 肺는 陽中之陰이다. 肝은 陰中之陽이요, 腎은 陰中之陰이다. 가운데에 위치한 脾는 陰中之至陰이다⁶⁾. 또 전통적으로 『難經』에서는 五臟의 上下位置를 肺-心-脾-肝-腎의 순서로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5難에서 맥을 짚는 깊이(寸)에 따라 五臟의 脈位를 서술한 내용이다.⁷⁾ 따라서 上部에 해당하는 寸部에 心肺를 배속하고, 中部에 해당하는 關部에 肝脾를 배속하고, 下部에 해당하는 尺部에 腎과 命門을 배속한 것이다. 여기서 다시 左陽右陰과 左血右氣의 원리에 따라 左寸에 陽中の 陽이면서 동시에 血을 주관하는 心을 배속하고, 右寸에 陽中の 陰이면서 동시에 氣를 주관하는 肺를 배속하였다. 左關에 陰中の 陽인 肝을, 右關에 陰中の 至陰인 脾를 배속하였다. 尺部에는 『難經』의 左腎右命門의 원칙⁸⁾에 따라 左尺에 腎水를 右尺에 命門火를

6) “故背爲陽，陽中之陽，心也；背爲陽，陽中之陰，肺也；腹爲陰，陰中之陰，腎也；腹爲陰，陰中之陽，脾也；腹爲陰，陰中之至陰，脾也”(索問·金匱眞言論)

7) “初持脈如三菽之重，與皮毛相得者，肺部也。如六菽之重，與血脈相得者，心部也。如九菽之重，與肌肉相得者，脾部也。如十二菽之重，與筋平者，肝部也。按之至骨，舉指來疾者，腎部也。故曰輕重也”

8) “三十六難曰臟各有一耳，腎獨有兩者，何也。然，腎兩者，非皆腎也。其左者爲腎，右者爲命門。”

배속하였다.

결론적으로 『難經』의 위와 같은 배속은 五臟의 機能, 공간적 위치, 陰陽五行상의 속성 등 생리 특징을 깊이 고찰하고, 여기에 五行의 相生相克理論을 활용함으로써 도출된 것이다.

3. 질병의 발생

50難에서는 五行의 生克乘侮理論을 이용하여 질병의 발생 유형을 虛邪, 實邪, 賊邪, 微邪, 正邪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뒤에서부터 오는 것은 虛邪가 되고, 앞에서부터 오는 것은 實邪가 되고, 이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은 賊邪가 되고, 자기가 이기는 데서 오는 것은 微邪가 되고, 스스로 병든 것은 正邪가 된다. 무엇을 말하는가? 가령 心病이 風邪에 맞아 발생하였다면 虛邪이고, 暑邪에 傷하여 발생하였다면 正邪이고, 飲食이나 勞倦으로 발생하였다면 實邪이며, 寒邪에 상하여 발생하였다면 微邪이며, 濕邪에 맞아 발생하였다면 賊邪이다(從後來者爲虛邪, 從前來者爲實邪, 從所不勝來者爲賊邪, 從所勝來者爲微邪, 自病者爲正邪. 何以言之. 仮令心病, 中風得之爲虛邪, 傷暑得之爲正邪, 飲食勞倦得之爲實邪, 傷寒得之爲微邪, 中濕得之爲賊邪).”

五行相生의 순서에 근거해 볼 때, “從後來者”는 나를 낳은 기운 즉 어미로부터 오는 것을 가리키며, “從前來者”는 내가 낳은 기운 즉 자식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한다. 또 五行相克의 순서에 근거해 볼 때, “從所不勝來者”는 나를 이기는 기운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며, “從所勝來者”는 내가 이기는 기운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한다. 『난경』에서는 이를 心病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중풍은 肝邪인데 肝木은 心火를 生하므로 心病이 風邪에 맞아 발생한 것은 어미로부터 病邪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從後來者”이며 곧 虛邪이다. 飲

食傷이나 勞倦傷은 脾土의 邪氣인데 心火는 脾土를 生하므로 심병이 飲食傷이나 勞倦傷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자식으로부터 病邪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從前來者”이며 곧 實邪이다. 傷寒은 肺金의 사기인데 火는 金을 克하므로 心病이 傷寒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從所勝來者”이며 곧 微邪이다. 中濕은 腎水의 사기인데 水는 火를 克하므로 心病이 中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從所不勝來者”이며 곧 實邪이다. 傷暑는 心火의 邪氣이므로 心病이 傷暑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自病”에 해당하며 곧 正邪이다.

이처럼 『난경』은 질병의 발생에 있어서 邪氣와 五臟의 관계를 오행상생상극이론을 근거로 虛邪, 實邪, 賊邪, 微邪, 正邪 등 5種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계절이나 부위 등에까지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질병의 전변

『難經』에서는 五行相生相克의 이론을 근거로 질병 전변에 대해서 相生傳은 易治요 相克傳은 難治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53難⁹⁾에서는 “七傳者死, 間藏者生”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54難¹⁰⁾에서는 “五臟病이 잘 낫지 않는 까닭은 그 이기는 바에 전하기 때문이고, 六腑病이 쉽게 낫는 것은 그 자식에게 전하기 때문이다(藏病所以難治者, 傳其所勝也, 府病易治者, 傳其子也)”라고 했다.

여기서 문제는 “七傳”과 “間藏”에 대한 해석

9) 五十三難曰, 經言七傳者死, 間藏者生. 何謂也. 然, 七傳者, 傳其所勝也, 間藏者, 傳其子也. 何以言之. 仮令心病傳肺, 肺傳肝, 肝傳脾, 脾傳腎, 腎傳心, 一藏不再傷, 故言七傳者死也. 仮令心病傳脾, 脾傳肺, 肺傳腎, 腎傳肝, 肝傳心, 是子母相傳, 竟而復始, 如環無端, 故曰生也.

10) 五十四難曰, 藏病難治, 府病易治, 何謂也. 然, 藏病所以難治者, 傳其所勝也, 府病易治者, 傳其子也. 與七傳, 間藏同法也.

이다. 『難經』에서는 “七傳者，傳其所勝也，間藏者，傳其子也”라고 하여 “七傳”은 相克傳이며 “間藏”은 相生傳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七傳”과 “間藏”이 어떻게 相克과 相生이 되는가?

먼저 “七傳”은 五行相生의 순서로 일곱 번 전한다는 말이다. 즉 肝→心→脾→肺→腎→肝→心→脾→肺→腎→肝→心……에서 肝에서 일곱 번 전하면 脾가 되고, 心에서 일곱 번 전하면 肺가 되고, 脾에서 일곱 번 전하면 腎이 되고, 肺에서 일곱 번 전하면 肝이 되고, 腎에서 일곱 번 전하면 心이 되어 각각 克하는 臟으로 전하게 된다. 그래서 “七傳者，傳其所勝也”라고 한 것이다.

다음으로 “間藏”을 살펴보자. 이는 『靈樞·病傳』에서 “諸病以次相傳，如是者，皆有死期，不可刺也，間一藏及二三四藏者，乃可刺也”라고 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內經』에서 질병의 전변은 相克傳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難經』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56難에서 “肺傳於肝，肝當傳脾”，“腎病傳心，心當傳肺”，“肝病傳脾，脾當傳腎”，“心病傳肺，肺當傳肝”，“脾病傳腎，腎當傳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以次相傳，如是者”는 바로 肝→脾→腎→心→肺→肝→脾→腎→心→肺……와 같이 克하는 臟으로 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전하면 결국에는 거듭 손상되는 臟이 나오게 되는데 『難經』의 “一藏不再傷”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 지경에 이르면 결국 사망하게 되므로, 이를 두고 『內經』에서는 “皆有死期”라 하였으니, 이는 『難經』의 “七傳者死”와 동일한 의미이다. 그렇다면 “間一藏及二三四藏者”는 일반적인 相克傳變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장을 건너 뛰어 전한다는 말인데, 『內經』에서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간병은 脾로 전해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어 곧바로 腎으로 전하거나 心으로 전한다면 이는 相克이 아닌 相生關係에 있는 臟으로

병을 傳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곧 『難經』의 “間藏者，傳其子也”의 의미이다. 『素問·平人氣象論』에서도 “脈反四時及不間藏曰難已”라고 하여 “藏을 건너뛰지 않고 그대로 相克으로 傳하면 병이 낫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內經』과 『難經』의 다른 점은 『內經』은 “間藏”을 폭넓게 해석해서 相克傳을 제외한 모두 경우의 전변으로 인식했고, 『難經』은 자기가 生하는 臟으로의 전변으로 국한시켜 보았다.

56년에는 積聚의 발생을 오행상극이론을 이용하여 해석하기도 했다. 肝을 예로 들면, 간이 폐로부터 병을 받으면 당연히 脾로 전해야 하는데, 그때가 마침 脾氣가 왕성한 때라면 脾가 사기를 받지 않으므로 간이 病邪를 폐로 돌려 주려한다. 하지만 肺가 이를 받으려 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간에 쌓여서 積聚가 된다. 그래서 간의 적취인 肥氣는 脾氣가 왕성한 季夏나 戊己일에 발생한다.¹¹⁾

이상은 『難經』이 질병의 발생과 전변을 해석함에 있어서 五行生克理論을 활용한 예를 보여준 것이다.

5. 사망 시기의 예측

『難經』에서는 五行의 相克理論을 응용하여 사망 시기를 예측하였다. 24難에 足少陰의 기운이 끊어지면 戊己일에 위독해지거나 사망하며, 足太陰의 기운이 끊어지면 甲乙일에 위독해지거나 사망하며, 足厥陰의 기운이 끊어지면 庚辛일에 위독해지거나 사망하며, 手太陰의 기운이 끊어지면 丙丁일에 위독해지거나 사망하게 된다고 했다.¹²⁾ 이는 『靈樞·經脈』의 내용과

11) “肺傳於肝，肝當傳脾，脾季夏適王，王者不受邪，肝復欲還肺，肺不肯受，故留結爲積，故知肥氣以季夏戊己日得之。”

12) “足少陰氣絕，即骨枯。少陰者，冬脈也，……戊日篤，己日死。”，“足太陰氣絕，則脈不榮其口唇。口唇者，肌肉之本也。……甲日篤，乙日死。”，“足厥

동일한데¹³⁾, 단지 『靈樞』에서는 각 조문의 끝에 “火勝金也”, “水勝火也”, “木勝土也”, “土勝水也”, “金勝木也”라고 하여, 五行相克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6. 刺鍼補瀉

『難經』은 『內經』의 “盛則瀉之, 虛則補之”¹⁴⁾의 원칙을 좀더 구체화시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라는 刺鍼補瀉法을 제시하였다¹⁵⁾. 예컨대, 腎虛證이라면 金生水하므로 腎經의 經穴인 復溜를 補하거나 肺經의 經穴인 經渠를 補해야 하며, 腎實證이라면 水生木하므로 腎經의 井穴인 湧泉을 瀉하거나 肝經의 井穴인 大敦을 瀉해야 한다. 이는 『內經』의 補瀉原則에 五行의 母子相生理論을 결합한 것으로, 후세 五行鍼法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五行鍼法은 여기에 五行相克規律을 추가한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難經』의 相生補瀉規律을 따르면서 동시에, 虛할 때는 자기를 克하는 기운을 瀉하고, 實할 때는 자기를 克하는 기운을 補한다.

또 75難에서는 이러한 母子補瀉規律을 한층 심화시켜 肝實肺虛한 경우에 직접 火를 瀉

하고 土를 補하는 대신에 火를 瀉하고 水를 補함으로써 치료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¹⁶⁾, 滑壽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것은 秦越人の 교묘한 수법으로 일거양득을 꾀한 것이다. 火를 瀉하면 한편으로 木氣를 빼앗으면서 동시에 金을 억압하는 기운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며, 水를 補하면 한편으로 金氣를 보태면서 동시에 火의 熱氣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만약 土를 補한다면 金氣를 돕는 데만 그칠 뿐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土를 補하지 않고 水를 補하는 까닭이다(此越人之妙, 一舉而兩得之者也. 且瀉火, 一則以奪木之氣, 一則以去金之克. 補水, 一則以益金之氣, 一則以制火之光. 若補土, 則一於助金而已, 不可施於兩用. 此所以不補土而補水也.)”¹⁷⁾

이는 針刺補瀉에 相生과 相克의 規律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補瀉原則은 藥物治療에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다¹⁸⁾.

이밖에도 『難經』은 『內經』의 迎隨補瀉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 “迎而奪之, 惡得無虛. 追(追는 ‘隨’가

陰氣絕, 則筋縮引卵與舌卷. 厥陰者, 肝脈也. …… 庚日篤, 辛日死.”, “手太陰氣絕, 卽皮毛焦. 太陰者, 肺也, …… 丙日篤, 丁日死.”, “手少陰氣絕, 則脈不道, …… 壬日篤, 癸日死.”

13) “手太陰氣絕, 則皮毛焦, …… 丙篤丁死, 火勝金也. 手少陰氣絕, 則脈不通, …… 壬篤癸死, 水勝火也. 足太陰氣絕者, 則脈不榮肌肉, 唇舌者, 肌肉之本也. …… 甲篤乙死, 木勝土也. 足少陰氣絕, 則骨枯. 少陰者, 冬脈也, …… 戊篤己死, 土勝水也. 足厥陰氣絕, 則筋絕, 厥陰者, 肝脈也, …… 庚篤辛死, 金勝木也.”

14) 『素問·厥論』, 『靈樞·經脈』, 『靈樞·禁服』, 『靈樞·通天』 등의 篇에 나온다.

15) “六十九難曰, 經言虛者補之, 實者瀉之, 不虛不實, 以經取之. 何謂也. 然,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當先補之, 然後瀉之. 不虛不實, 以經取之者, 是正經自病生, 不中他邪也, 當自取其經, 故言以經取之.”

16) “七十五難曰, 經言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 何謂也. 然, 金木水火土, 當更相平. 東方木也, 西方金也, 木欲實, 金當平之, 火欲實, 水當平之, 土欲實, 木當平之, 金欲實, 火當平之, 水欲實, 土當平之, 東方肝也, 則知肝實, 西方肺也, 則知肺虛. 瀉南方火, 補北方水. 南方火, 火者木之子也, 北方水, 水者木之母也, 水勝火.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故瀉火補水, 欲令金不得平木也. 經曰不能治其虛, 何問其餘, 此之謂也.”

17) 滑壽, 難經本義, 人民衛生出版社, 1995. 93쪽

18) 肝鬱로 脾胃가 不和 경우 肝을 瀉하게 되는 것이 이것은 五行相克의 規律을 활용한 것이다. 또 脾氣가 虛하여 肺病이 발생했을 때, 肺를 補하는 동시에 脾를 도와 肺機能을 활성화시킨다[培土生金], 腎水를 보충해서서 肝木을 滋養하는 것 [滋水養木] 등은 五行相生의 規律을 응용한 것이다. 『東醫寶鑑』에서도 『難經』의 관련 문장을 「用藥門」에 수록해 놓았다. (許浚, 原本東醫寶鑑, 南山堂, 1991. 350쪽)

타당함. 아래의 ‘追’도 마찬가지로)而濟之, 惡得無實. 迎之隨之, 以意和之, 鍼道畢矣”라고 했고, 『靈樞·小鍼解』에서 “迎而奪之者, 瀉也. 隨而濟之者, 補也.”라고 했고, 『靈樞·終始』에서 “瀉者迎之, 補者隨之”라고 했는데, ‘迎隨補瀉’란 말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迎은 瀉하는 것이고, 隨는 補하는 것이다. 임진석의 주장¹⁹⁾에 따르면 『內經』의 “迎而奪之”와 “隨而濟之”는 針向補瀉나 手技法이 아닌 補瀉의 전반적인 총원칙일 뿐이다. 그러나 『難經·79난』에서는 “迎而奪之者, 瀉其子也, 隨而濟之者, 補其母也.”라고 하여, 迎隨를 五行母子相生 規律을 응용한 子母補瀉法으로 해석하였다.²⁰⁾

7. 예 방

『難經』은 五行相克規律을 이용하여 질병의 전변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질병을 미리 예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七十七難에 “肝의 병을 보거든 肝病이 脾로 전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그 脾氣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肝의 邪氣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아직 병들지 않았을 때에 치료한다고 한 것이다(見肝之病, 則知肝當傳之與脾, 故先實其脾氣, 無令得受肝之邪, 故曰治未病焉)”라고 하였다. 이는 『內經』의 “治未病”의 사상²¹⁾을 五行相克 이론을 응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8. 結 論

- 19) 林鎮錫, “迎隨補瀉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2권 2호, 大韓原典醫史學會, 1999. 286쪽
- 20) 이외에도 72難에서는 迎隨補瀉의 의미를 經脈의 流注方向에 따른 鍼의 方向의 順逆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論하지 않는다.
- 21) 『素問·金匱眞言論』의 “聖人不治已病治未病”, 『靈樞·逆順』의 “上工, 刺其未生者也” 등이 그 예이다.

지금까지 『難經』에서 五行의 相生과 相克 이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五俞穴의 五行配屬, 寸關尺의 五臟配屬, 疾病의 發生, 疾病의 傳變, 사망시기의 예측, 刺鍼補瀉, 預防 등 몇 가지 방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難經』은 生理, 病理, 診斷, 治療, 豫防 등 한의학 전분야에서 五行의 相生과 相克 理論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 參考文獻

1. 滑壽, 難經本義, 人民衛生出版社, 1995
2.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1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양의학연구원 출판부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양의학연구원 출판부
5. 許浚, 原本東醫寶鑑, 南山堂, 1991
6. 李容範·洪元植, “『黃帝內經』의 本輸理論에 대한 연구”, 大韓原典醫史學會誌 6권, 1991
7. 林鎮錫, “迎隨補瀉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2권 2호, 大韓原典醫史學會, 1999